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 송 | 이사 30,19,30 참조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 이사 40,1-5,9-11

화답 송 | 시편 85(84),9ㄱ-ㄷ과 10.11-12.13-14(◎ 8 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2독서 | 2베드 3,8-14

복음환송 | 루카 3,4,6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 마르 1,1-8

영성체송 | 바룩 5,5; 4,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나승구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 | 금호기동(선교) 주임

주님의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노공상이 있었고, 양반과 상놈이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평민은 귀족과 달라야 했고, 노예는 인간의 축에 끼지도 못하고 팔려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불과 백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차별을 두고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이라 비웃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인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권리임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나라는 지금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오랜 유배 기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며 희망의 노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힌 길은, 가두었던 벽은, 가려졌던 주님의 영광은, 뚫리고, 열리고, 드러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타향살이 유배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고향 땅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쌌던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배자의 결심과 한 마디의 명령으로 가족들과 가문이 몰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해방입니다.

우리 시대의 해방도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소중하다는 귀한 신념을 인류 공통의 가치로 품어 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과 성, 투쟁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모두는 소중하다,

한 인간은 온 지구를 품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소중한 가치는 여기저기 할퀴 자국으로 상처 입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나이 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될 만큼 인간의 가치는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비판하면서도 우리 안에서조차 차별은 존재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보는 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보는 눈, 배운 것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는 눈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 안에 차별은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런 차별이 없다면 흙수저와 금수저 같은 이야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주변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한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셨으며,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이들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분의 길을 곧게 내는 것은 우리도 역시 그분이 찾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어 먹이시고 안으시고 이끄시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립에 차별과 혐오 없는 주님의 길을 마련한다면 임마누엘은 비로소 복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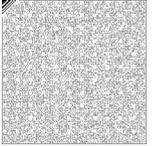
아이슬란드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이사 40,3)**

주님! 처음 가는 길,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더욱 인내하게 도와주소서. 앞에 걸어도 뒤에 오는 이를 생각하게 하시고, 뒤에 따라 걸을지라도 앞에 가는 이를 믿고 따르게 하소서. 새로이 만나는 이들의 마음을 보고 배우게 하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유송자 데레사 | AFI(국제 가톨릭 형제회)

전·진·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창시자 Cicely Saunders는 많은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 당면하게 되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 사회적, 영적 고통도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다양한 면의 아픔을 통합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것이고, 환자가 죽음을 기다리기보다 남은 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전인적 돌봄을 제공해 주는 의료의 한 분야입니다.

저는 전·진·상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일하면서 육체적 통증이 완화되어도 영적 통증이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쉽게 세상을 떠나지 못했던 분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그중 두 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분은 비신자로서, 혼수상태로 일주일 동안 지내시던 어르신입니다. 천주교 신자인 그분의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대세를 드려달라고 하여 병실에 들어간 순간, 내내 의식이 없으시던 할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제가 “대세 받기를 원하시느냐”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원한다는 표현을 하였고, 저는 바로 할머니에게 ‘마리아’라는 세례명으로 대세를 드렸습니다. 5분 후에 할머니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선종하셨습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평소에 세례받기를 원하셨다고 하는데, 생의 마지막 순간, 의식을 되찾은 상태에서 대세를 받고 떠나신 겁니다. 영적 준비가 될 때까지 힘든 삶을 지탱해 오신 마리아 할머니와 그를 기다려 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한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입원하면서부터 “나에게 종교에 대해서는 질문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조심스럽게 환자분의 종교에 대해서 물

으니 “시택 큰 조카가 목사님이고, 시숙이 장로님인데...” 하며 뒷말을 흐리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모셔올까요?” 하니, “아니요, 진짜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라고 하시며 화를 벌컥 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왜 나에게 진짜 종교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라고 짜증을 내셨습니다. 의아함을 느낀 제가 “진짜 종교가 뭔데요?” 하고 물으니, “천주교지요! 나는 이 병원에 있는 동안, 천주교 교리를 배워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랑 자식들도 다 성당에 다니게 할 것이고요.” 하며 활기찬 음성으로 선언하듯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이 환자분은 개별지도로 교리를 배워 ‘안나’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안나님이 병상에 있는 동안 그분의 말씀대로 남편과 자녀들은 물론 여동생과 조카들까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나님이 돌아가신 지 1년여가 지났을 때, 그의 큰 따님이 전·진·상 복지관 봉사자로 등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 하느님의 부르심은 신비롭기만 합니다.



나를 이끄는
성령구절

하느님의 용기를
내어라



남미리 비비안나
대처동성당

(신명기 31.7)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 독거 어르신에게 생필품을 선물해주세요! ”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에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먹을 돈도 없는 현실이 암담해.” - 저소득 독거 어르신

수입이 기초연금 25만 원이 전부인 어르신이 계십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생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최저생계비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입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합니다.

월세와 병원비를 제외한 지출은 엄두도 못 내고, 전기세와 가스비를 아끼기 위해 웬만한 추위가 아니면 보일러, 전기장판은 켜지 않습니다. 전원이 꺼진 밥솥 안의 찬밥은 같이 먹을 반찬이 없어 하루에 한 끼조차 먹기 어렵고, 과일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만 159만 명(2020, 보건복지부). 그중 절반에 가까운 어르신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하며, 이는 고령층 10명 중 4명 이상이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노인 세대가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다

보니 노인 이용 공공시설 운영과 무료급식이 중단되고, 자원봉사자 대면 서비스 등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은 더 많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의 뜻을 이어 이처럼 어렵게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께 생활필수품을 선물하며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자 합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드실 수 있도록 김치, 도시락 김, 간편식, 평소 부족한 영양분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영양제와 두유, 퇴행성 관절 통증에 필요한 파스, 손목 및 무릎보호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마스크와 두루마리 휴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침구 세트와 보행 보조기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지원합니다.

“똑똑! 어르신, 선물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물은 독거 어르신에게 전달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필수품이면서 어르신의 외로움과 정서적 고립감을 채워 줄 이웃의 사랑과 관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독거 어르신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2020년 12월5일~2021년 1월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을 위해 쓰여집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는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오늘(12월 6일)은 제13회 '생명수호주일'입니다

이날은 교회의 생명수호운동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신자들이 생명수호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본당의 모든 주일 미사를 '생명수호미사'로 봉헌합니다.

오늘(12월 6일)은 제39회 '인권 주일'이며 '사회 교리 주간(12월 6일~12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국군장병 및 수감자를 위한 성탄 위문금

본 교구 소속 군종 신부들이 전후방에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국군장병들을 위문하고자 각 본당에서 성탄 위문금을 모금합니다. 또한, 좌절과 실의 속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수감자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위문금도 모금합니다.

춘천교구장 김운회 주교 사임, 후임 교구장에 김주영 신부 임명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춘천교구장 김운회 루카 주교(만 76세)의 교회법에 따른 사임 청원을 받아들이고, 춘천교구 김주영 시몬 신부(만 50세, 1997년 사제 수품)를 춘천교구장으로 임명하셨다고 주한 교황대 사관이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2년 12월8일 박정렬 바오로 신부(51세)
- 1947년 12월12일 방영석 요셉 신부(29세)
- 1968년 12월8일 임종구 바오로 신부(58세)
- 1972년 12월10일 김유룡 필립보 신부(80세)
- 2001년 12월7일 이운기 스테파노 신부(44세)
- 2002년 12월8일 김정남 안드레아 신부(46세)

생명을 위한 기도

-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령으로 총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또한 저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진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오늘날 그릇된 가치관과 교만한 마음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인간의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세상 모든 이가 깨닫게 하소서.
 - 평화의 모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저희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생명을 수호하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 한국의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인준)

가톨릭 교리상식 서울주보에 물어보세요!

QR 코드:

더 자세한 내용 QR 스캔 ▲

참여기간 11월 28일(토)~12월 31일(목)
참여방법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 접속
-> 홈페이지 하단 이벤트

교구장일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252차 미사('내 마음의 복녘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2월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02)727-2420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신의주 본당 · 마전동 본당 /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지구별 상담소: 4성북지구(노동사목회관), 5지구(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당), 13지구(삼선산성당), 17지구(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 / (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 / (월~금)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스페이스노션: 1전시실
허용 개인전: 2, 3전시실
전시일정: 12월9일(월)~14일(월)

성경통독 아카데미

내용: 공관복음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곳: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의실
문의: 010-7586-5425 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미사 취소 안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12월 후원회원 월례미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없습니다 비록 모여서 미사봉헌하지는 못하지만, 교정사목위원회 신부들이 언제나 후원회원님들을 기억하며,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향으로 미사와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 02)921-5094

가톨릭예술아카데미 12월 '온택트 공개강좌' 수강생 모집

가톨릭예술아카데미에서는 온라인에서 만나는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문의: 02)751-4107, 4110 홍보위원장
대상: 20대 이상 천주교 신자 및 일반인(강의별 선착순 100명) / 수강료 개별확인
신청: 온라인 신청(네이버 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때: 12월7일~31일 20시~21시
곳: 줌(Zoom) 어플을 활용한 비대면 강좌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참조

매주(월)	언택트 시즌의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강화하기(총3강)	윤재연(서울대학교병원 교육인재개발실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매주(화)	동아시아 근현대 미술의 이해(총2강)	김현정(영화배우, 화가)
매주(목)	뮤지컬과 함께하는 묵상 II(총4강)	이슬(공연기획사 하람컴퍼니 대표)
매주(금)	성경이란 무엇인가(총2강)	허영엽 신부(홍보위원장 부위원장)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일 둘째주(토) 15시~(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수시	수도원(경남 고성)	010-5301-1319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한국의방선교회	2021년 1월3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인준단체 알림

모임

복음화학교 온라인 피정(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때: 12월12일(토) 오전 10시 / 문의: 02)753-8765
 유튜브 검색창에서 치우치유TV를 검색한 후 141기 온라인 피정을 누르면 됩니다

해넘이 피정

때: 12월30일(수) 16시30분~2021년 1월1일(금) 13시30분
 곳: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주최) / 회비: 24만원
 계좌: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세~40세 신자
 때, 곳: 12월13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 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문의: 010-3817-0567(columban.or.kr)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 지도: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2월12일(토)~13일(일), 2021년 1월9일(토)~10일(일)
3박4일	12월17일(목)~20일(일), 2021년 1월14일(목)~17일(일)
8박10일	12월26일(토)~2021년 1월3일(일), 1월31일(일)~2월8일(월)-신학생
40일	12월22일(화)~2021년 1월30일(토)

교육

신구약 성경통독 / 문의: 010-9401-9374

때, 곳: 2021년 1월15일~23일(8박9일), 상지 피정 집(주최)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회랍어)

때, 곳: 1월~12월 19시~21시(주1회 2시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회비: 3개월 30만원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2021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 문의: 02)745-8339
 원서접수: 2021년 2월10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시스티나음악원 회원 모집 / 문의: 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 금) 11시	오후반 (화) 19시30분(주1회)
----------------	---------------------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2021년 1월 개강·6주 과정)

안전한 강의 환경을 위해 수강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한 사랑 체험과 우리의 상처	(목) 14시~16시	손우배 신부
사랑의 법, 영혼의 법 -하느님의 사랑, 성사	(금) 14시~16시	이훈 신부
바로로 서간 과정(제2바로로 서간)	(금) 14시~16시	임숙희박사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 접수: 2021년 1월19일(화)까지
 문의: 02)747-8501(ci.catholic.ac.kr)

교리교육 학과	(월~금) 주간(2년)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종교교육 학과	(월~금) 야간(2년)	
신학심화 과정	(화~목) 주간(1년)	교리·종교학과 졸업생, 본원 통신과정 졸업생,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원데이 목주 만들기 체험(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o4 / 문의: 010-5234-5044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2021년 2월~12월(2월 예비학교 예정)
 대상: 15세 이상 남자 / 취업(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 문의: 02)828-3600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 교육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바로로말 '영화 속 행복찾기' 영 시니어 모집(기초반)

주제: 자아성장과 신앙성숙 위한 힐링 무비 / 선착순 12명
 때, 곳: 2021년 1월8일부터 매일 둘째·넷째주 (금) 13시30분~17시30분(총8회), 혜화바로로말 혜화나무회비: 12만원 / 문의(접수): 010-2928-8274 이 벨라벳디수녀

2021학년도 가톨릭관동대학교 정시 모집

모집기간: 2021년 1월7일(목)~11일(일)
 의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의료융합대학, 항공대학,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예술대학, 관광스포츠대학
 2022학년도 가톨릭지도추천전형: 의학과, 간호학과 모집 / 문의: 033)649-7000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
 과정: 17세~21세(고등 과정) 2년 6학기제
 입학: 1월·5월·9월 입학 가능 / 통학(기숙 가능)
 교육: 영상제작(극·다큐), 시나리오, 미술·공예, 진로·진학
 블로그: blog.naver.com/donboscoschool
 곳: 살레시오미래교육원(양천구 신월3동)
 문의: 02)833-0930(dybsbosco@daum.net)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동계특강

과목: 클래식명곡 음악감상, 성악 입문, 아베마리아와 성체복상곡으로 배우는 발성법, 클래식기타로 성가 연주하기, 가톨릭 성가를 이용한 편곡법
 때: 2021년 1월~2월(기간 및 시간은 과목별로 상이함)
 접수기간: 12월14일(일)~31일(목)까지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접수): 02)393-2213~5(http://www.casm.site)

모집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단 모집 및 첫모임

대상: 중1~고1 남녀 학생(2020년 초6학년 포함)
 내용: 리더십 양성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비대면 포함)
 모임: 12월20일 14시 / 홈페이지(www.stvin.or.kr) 참조
 곳: 서울 성빈센트청소년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6번 출구) / 문의(접수): 02)926-3440, 010-6880-9605

미사

들꽃마을 서울 영성강의 및 미사 취소 안내

12월8일(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054)955-4133, 4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12월11일(금) 10시~13시 / 성시간, 묵주기도, 미사
 곳: 가톨릭회관 / 코로나 대응 위해 40명 제한 접수 필수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성체미사(도미니코 수도회)

성체미사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더 깊이 체험하고 묵상하는 미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때, 곳: 매주(수) 19시30분,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4.19민주묘역 근처) / 문의: 010-5818-8431 홍 이사야 신부

인내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우울·불안, 성격, 대인관계, 가족, 진로 / 02)2258-7720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 비대면 상담 가능
 상담비: 대학원생 5천원, 전문가 7만원

바로로말 비대면 라이브 북콘

주제: 톨스를 웃게 한 사람
 출연: 박진홍 신부, 자전거 탄 풍경
 때: 12월16일(수) 14시, 유튜브
 문의: 02)944-0855 / 접속: 바로로말 인터넷서점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운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서울시 위탁)
 회비: 언어상담 20회, 10만원, 매체상담 20회, 60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 / 문의: 02)2051-3743
 카카오채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검색 후 채널 추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바랍니다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정서·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섭식장애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 갈등과 문제, 대인관계 부적응 등

유관단체 알림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명동) 501호
 심한 우울과 불안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성인
 교육·미술심리상담사 2급: 2021년 1월4일~2월1일
 매주(월) 10시~15시(5회, 선착순 6명 이내)

직원모집

길동성당 사무장 모집 / 문의: 02)488-3561, 2
 분야: 계약직 사무장 1명(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12월20일(일)까지 우편(우 05300,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296 (길동) 길동성당) 및 방문 접수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방화3동성당 연주자 모집

모집 분야: 소프라노, 테너,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오르간 가능) / 활동 내역: 본당미사와 연주회
 연주 곡명: Ombra mai fu : Largo di Handel
 대상: 가톨릭 신자(또는 예비신자), 학생(또한 대학원생) 환영
 봉사료: 유급 / 서류 심사 후 오디션(개별 통보)
 12월20일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ys9059@naver.com) 접수 / 문의: 02)2661-2234, 5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 근무자(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2월16일(수)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신간

2021 말씀과 함께



김옥순 그림
바오로말 | 4천원
문의: 02)944-0944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매일을 기록하는 수첩이다. 가족을 주제로 김옥순 수녀가 어릴 적 가족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상과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마음의 행복을 찾고 이 시기를 이겨내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

신간

2021 주님과 함께 (탁상용 말씀 달력)



박문정 그림
바오로말 | 8천원
문의: 02)944-0944

1년 365일 교회 전례력에 따라 매일 다른 그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묵상하고 살아가도록 초대한다. 대림, 사순, 부활, 연중, 성탄 시기 등 전례 시기와 매일 성경 말씀과 관련된 상징이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어 1년 내내 전례 흐름에 따라 주님의 축복 속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

신간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



김상인 지음
위즈앤비즈 | 154쪽 | 8천원
문의: 031)986-7141

미래사목연구소의 대림묵상집이 새로 부임한 제2대 미래사목연구소장 김상인 신부에 의해 2020년 새롭게 집필되었다. 대림 시기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매일 매일의 말씀 묵상 안에서 신앙에 대한 질문과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준다.

공연

아이들극장 송년 공연 구두쇠 스크루지



공연시간: 홈페이지(https://jct.jfac.or.kr) 참조
입장료: 전석 3만원 / 문의: 02)2088-4290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4명 20% 할인

음악극 <구두쇠 스크루지>가 12월15일(화)~26일(토)까지 종로 아이들극장에서 공연된다. 작가 찰스 디킨스가 극 중 화자로 등장하여 마치 할아버지의 옛날이야기처럼 스크루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박소연 작곡가 가 만든 10여 곡의 캐럴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준다.

콘서트

산울림 편지콘서트 드보르작-Going Home



공연시간: 수목금 20시, 토일25일 16시(월화 공연없음)
입장료: 전석 4만원 / 문의: 02)334-5915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4명 30% 할인
청년할인(만 25세 이하) 30%할인 경로만 65세 이상) 50%할인

<2020 산울림 편지콘서트 - 드보르작 Going Home>이 12월11일(금)~31일(목)까지 소극장 산울림에서 있다. 이번 공연은 드보르작의 삶을 가상의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의 음악적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공연

국립극장 연말 기획 공연 명색이 아프레길



공연시간: 화-목 19시30분, 수-토 일-공휴일 15시 (12월23일 19시30분, 12월25일 15시, 1월1일 공연 없음)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5천원, A석 2만원 / 문의: 02)2280-4114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4명 30% 할인

시대를 앞서간 여성,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 박남옥 이야기를 다룬 공연이 12월23일(수)~2021년 1월24일(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있다. 여성 서사라는 좁은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전쟁 후 그 혼란과 분열 속에서 끌어올린 우리의 정신과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한다.

‘장애인신앙교육봉사분과’ 신설에 관한 공지문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올해 대림 제 2 주일은 39번째 맞는 ‘인권 주일’입니다. 대림 제 2 주일을 ‘인권 주일’로 정한 까닭은 ‘하느님 모습으로’(창세 1,26-28) 창조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음 실천의 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명 모두가 하느님의 성성(聖性)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누구도 인간 존엄을 지키고 존중 받을 권리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 모두의 인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어져 있는 이들의 인권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이러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꾸준히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39만 2천여 명(서울시 전체인구의 4.0%)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대교구의 모든 본당도 각각 평균 4%의 장애인 신자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2,000명인 본당이라면 적어도 80명의 장애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본당의 장애인이 모두 성당에 온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실제로 미사에 오는 장애인은 극소수입니다.

이는 비단 물리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장애인이 성당에 나오기 어려운 여건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곧 여러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을 배려한, 장애인들에게 높았던 성전의 문턱을 낮추는 공간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하시며 사회에게 가장 소외 받고 약한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며, 그들의 문제에 우리의 목소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복음화의 특별한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 형제 중에서 작은 이들로 여겨지는 장애인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 또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더욱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명동성당 역시 서울대교구의 주교좌 성당이자 한국 가톨릭교회의 심장으로서, 교회의 이러한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의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쏟아야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명동성당은 지금의 모습에서 더 나아간 모습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다가오는 2021년도부터 ‘청소년봉사분과’의 ‘초등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운영을 중단하고 ‘장애인 신앙교육’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교육봉사분과’에 속해 있었던 ‘라파엘 솔봉이(성인 장애인부)’와 ‘청소년봉사분과’에 속해 있었던 ‘솔봉이(장애아부)’가 함께 ‘장애인신앙교육봉사분과’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운영될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신앙교육봉사분과’가 명동성당에서 참사랑을 실현해나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6일 인권 주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임신부 조학문 바오로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학교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 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 본당 주보 성인 축일 》

12월 8일(화)은 본당 주보(主保)이신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 명동대성당 미사 시간 (11월 30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요일	07:00, 10:00, 18:00
화~금	07:00, 10:00, 18:00, 19:00
토요일	07:00,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
일요일	7:00, 9:00(영어), 10:00, 11:00 12:00(교중) 16:00, 17:00, 18:00, 19:00(청년)

- ※ 평일과 토요일, 오전 7시 미사가 재개되고,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평일 오후 7시 미사가 재개됩니다.
- ※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 ※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 ※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 ※ 성당 개방 시간 ☞ 월~토 : 09:00 ~ 20:00
☞ 일요일 : 06:00 ~ 20:00

◎ 12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12월 6일(주일)로 예정됐던 예비신자 환영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12월 5일(토)과 6일(주일) 양일에 걸쳐 직접 내방 접수로 교리반 신청을 받으며, 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따라 출석 수업이 불가하게 될 경우 온라인 화상 수업(Zoom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수요반	오후7:30	교구청본관 402호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주일반	오후4:00	교구청본관 401호	이 안젤라 수녀

- ※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각 반 50명씩 선착순 접수
- ※ 12월 예비신자 교리반 신청일시·장소
- 12월 5일(토) 15:00~18:00 본당 사무실 건물 2층
- 12월 6일(일) 09:00~18:00 본당 사무실 건물 2층
- ※ 접수 시 준비사항 : 등록비 1만원, 명함판 사진 1매

◎ 성탄봉헌금 접수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성당 안과 마당에 마련될 구유와 제대 트리, 꽃 장식을 위한 '성탄봉헌금'을 접수합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본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시간 재편에 따른 본당 사무실 업무 시간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20:00	평일(화~금)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사무실 폐문
일요일	07:00~20:00	

◎ 대림 시기(11월 29일~12월 23일) 판공성사

※ 대림 제 1 주일부터 보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올해는 성탄 집중판공이 없사오니 12월 23일(수)까지 아래 안내된 고해성사 요일과 시간을 참고하시어 판공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성사표는 배부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성사를 보신 후에는 교적에 성사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내방 또는 유선으로 사무실에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일	고해시간	고해장소
화~금	11:00 ~ 18:00	상설고해소
토요일	11:00 ~ 19:00	
주 일	10:00 ~ 19:00	

※ 고해성사 휴무 : 12월 24일(목)~2021년 1월 1일(금)

◎ 2021년도 교무금 책정 및 납입

어려운시 중에도 2020년 한 해 동안 정성껏 교무금을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정산하지 못한 분들은 가능하신대로 교무금을 납부해 주십시오. 이어 2021년도 교무금 책정을 하시는 분들께는 본당 신년 달력과 가정기도문 책자를 드립니다.

◎ 지면 부족으로 11월 16일 ~ 12월 6일까지의 기부천사 기부 내역은 13일자 주보에 공지합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1/23-11/29).....27,958,130
 - 대림 제 1 주일 헌금.....12,865,000
 - 감사헌금 (11/23-11/29).....3,620,511
- 김 마리아 / 성 수산나 / 신 카타리나
심 요한 바오로 2세 / 이 가브리엘라
이 미카엘 / 이 미카엘라 / 이 보나
전 마리안나 / 정 올리바 / 진 헬레나
천 테클라 / 한 그레고리오 / 홍 요셉
명동성서백주관 / 본당 성체분배단